

〈일반논문〉

## 고구려 고국원왕의 환도성 이거와 국내성 축조의 원인

장 효 정 \*

〈목차〉

- I. 머리말
- II. 환도성 이거 - 국내로의 복귀
- III. 국내성 축조 - 미완 제국의 꿈
- IV. 맺음말 - 동아시아에서 국내성 축조의 의의

[국문초록]

342년에 환도성을 수복하고 국내성을 쌓은 고국원왕은 환도성으로 이거하였다. 이것은 보통 집안지역 내에서의 왕의 이동으로 보고, 전연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실 대규모 인력동원을 요구하는 두 성에서 이루어진 축성의 사건을 전쟁 직전에 실행했던 점에 의문을 갖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고민해보았다.

당시 평양지역에서 통치하던 고국원왕은 평양성을 증축하고 신성을 축조하여 평양 및 요동지역을 안정시킨 뒤, 환도성으로 이거하였다. 이것은 전연과의 전쟁에서 동진과의 교류보다는 후조와 우문부와의 연계가 더 우선시되었고, 또 집안지역이 평양지역보다 전쟁에 더 유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하였다. 나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주무관

아가 전연의 공세로부터 부여지역을 공고히 하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다만, 국내성의 축조는 꼭 전쟁대비만이 아닌 고국원왕의 원대한 계획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국내성은 당시 많은 중국의 이주민들을 포함한 주변 백성들을 보호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권의 초월적 위상을 표출하기 위한 상징적인 구조물이었다. 고국원왕은 『주례』 고공기에 입각한 왕궁이 중앙에 위치하는 정방형의 국내성을 쌓아 이상적인 예적 질서의 공간적 왕성을 구현하려고 했다고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고대인의 우주론적 상징체계 관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치적인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고자 계획하였다고 보았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평면 형태인 방형의 국내성 축조의 세계관은 태왕호 인식과 맞물려 이어지는 일련의 태학설치 및 율령반포 등의 제도적 완성으로 나아가는 중앙집권화의 노력과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도성사에서 국내성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 주제어

고구려(高句麗), 고국원왕(故國原王), 환도성(丸都城), 국내성(國內城), 평양성(平壤城), 평양동황성(平壤東黃城), 국강상(國罡上), 고국(故國), 이거(移居), 천왕호(天王號), 태왕호(太王號), 전연(前燕), 주례 고공기(周禮 考工記)

---

## I. 머리말

고구려는 城의 나라이다. 이것은 그 나라 이름의 어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고구려의 ‘구려’는 성과 관련된 용어로 해석되는 “溝瀆”에서 나왔다.<sup>1)</sup> 다른 종족들에 비해<sup>2)</sup> 이런 특이한 고구려의 모습은 『삼국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놓았다.

A 其俗節食 好治宮室 於所居之左右立大屋 祭鬼神 又祀靈星社稷 ...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 溝淒者 句麗名城也 (『삼국지』동이전 고구려조)

고구려는 꽤 일찍부터 왕성 안에 궁궐을 지었고,<sup>3)</sup> 그 좌우에 큰 건물도 세워 종묘를 두었다. 또 성읍과 석성도 많이 쌓았는데, 요동지역의 산지형에 맞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는 산성과 같이 좋은 것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지역을 중심으로 요동방면에 부채꼴 모양으로 구축된 많은 산성과 군사방어 위성들이 이것을 반영한다.<sup>4)</sup> 이렇듯 고구려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성과 궁궐 쌓는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곧, 이러한 기록들은 일찍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고구려인들이 도성을 축조하는 지식이 많았으며 나아가 갈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는 건국의 초기 중심지였던 졸본지역과 집안지역에 많은 고구려의 도성지를 확인할 수 있다. 2천년이란 세월 때문에, 그리고 문헌 기록 및 고고학 자료의 해석 차이로 인해 이것에 대한 위치 비정에 많은 논란이 있다. 그중에서도 고구려가 최초로 천도했던 왕성으로서 집안 지역에 있는 환도성지(산성자산성)와 국내성지(집안현성)가 주목되어 왔다. 이

- 
- 1) 이병도, 「고구려국호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362~363쪽; 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 I-고대편』, 일조각, 1982, 82쪽.
  - 2) 사실 『사기』 이후 중국의 정사에서는 성곽이란 유목민족에게 상관이 없는 구조물이라고 단정짓고 있으나, 성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일본 일찍부터 흉노족에서 성이 확인된다(박한제, 「유목국가와 성곽」, 『역사학보』 200, 2008, 420~423쪽).
  - 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명성왕조, “四年 秋七月 營作城郭宮室 六年 秋八月 神雀集宮庭”. ;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명왕조, “三年 秋七月 作離宮於鶻川”.
  - 4) 여호규, 『고구려 성 I』, 국방군사연구소, 1998; 이경미, 「압록강 중·상류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과 기능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66, 2012.

환도성 및 국내성에 관한 연구는 고구려의 초기 천도뿐만 아니라 말기 권력투쟁과 관련하여 전 시기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기 도성의 위치 비정에 집중되어 온 연구들<sup>5)</sup>은 고구려의 초기 천도의 연구와 맞물려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졸본에서 국내로의 천도가 유리왕대, 태조왕대, 신대왕대, 산상왕대에 이루어졌다는 설로 나누어지며,<sup>6)</sup> 그 천도한 위치에 대한 설도 국내성지, 마선구지, 양민고성지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sup>7)</sup> 이것은 최근 이 두 성을 아우르는 집안 분지의 고구려 중기 도성의 공간 구성 및 그 성격에 대한 것으로 그 연구가 심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하겠다.<sup>8)</sup>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약간 간과했다고 여겨지는 고국원왕대의 환도성 이거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그 연구가 고구려의 다른 천도 문제에 더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 환도성 이거에 관한 연구가 약간 소홀히 다루어져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허나, 이것은 4세기 전반 고구려의 발전을 파악하는 데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나아가 기록상 이 환도성 이거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국내성 축조의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추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논지의 혼잡을 피하고자 환도성 이거와 국내성 축조를 구분하여 서술

5) 여러 견해에 대한 분석은 이정빈, 「고구려의 국내성·환도성과 천도」, 『한국고대사 연구』 87, 2017(a)를 참고하기 바란다.

6) 자세한 사항은 권순홍, 『고구려 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a), 3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7) 권순홍, 「고구려 평양의 변천과 전기 평양성의 위치에 관한 쟁점 검토」, 『역사문화 연구』 70, 2019(b), 5~11쪽의 명료한 정리가 좋은 참고된다.

8) 자세한 연구동향은 기경량, 『고구려 왕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a), 114~127쪽 및 여호규, 「고구려 국내성기의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 『고구려발해연구』 65, 2019, 1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하겠다. 다만, 이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기에 서로 중복되어 설명되는 부분은 피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본고에서 제시한 새로운 견해가 충분한 논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차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이 연구를 통해 고국원왕대 정치적 중심지인 왕성의 추이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선행제현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

## II. 환도성 이거 - 국내로의 복귀

그럼 먼저 4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동향을 살펴보자. 이를 보면, 고국원왕이 환도성으로 이거하기 전에 국제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소용돌이쳤음을 알 수 있다.

[표] 4세기 전반 고구려 및 전연 주변의 국제정세 동향 일람표

년 월	내 용
285	[모용섭귀 283년 사망], 모용외 모용선비 통솔. 부여 붕괴시킴.
289	모용외, 대릉하유역으로 천이, 극성을 거점으로 정함.
293.8	모용외, 고구려 공격. 고노자 활약으로 모용외 패퇴.
294	모용외, 책성으로 천도.
296.8	모용외, 고구려 침공. 고노자 신성태수 임명.
302	모용외, 선비 우문부 격파.
306~307	팔왕의 난 끝. 영가의 난 시작.
307.12	모용외, 선비 대선우 자칭.
309	동위교위와 요동태수의 살육전

313	모용외, 낙랑 대방군 고구려 전투 가입. 고구려 승리.
313~314	낙랑 대방군 고구려로 편입. 모용외, 고구려 전투 가입. 고구려 승리, 요동 상당부분 고구려화.
314	쇠(고국원왕) 세자에 책봉. 평주자사 최비, 우문, 단요, 고구려 삼국연합.
318	모용외, 동진으로부터 책봉.
319	평주자사 최비, 고구려, 단부, 우문부 협동으로 모용외 공략, 책성포위. 모용외 이간질 계략으로 실패. 전연, 요동지역 점령 후 고구려 계속 공격하니, 미천왕 동맹 청함. 석륵, 후조 건국.
319.12	최비, 고구려로 망명.
320.12	고구려, 요동 공격. 모용인에게 대패.
321	모용외, 동진으로부터 책봉. 12월: 모용한, 요동 주진.
329	후조 석륵, 전조 병합.
330	미천왕, 후조 석륵에게 활 선물.
331.2	미천왕 사망, 고국원왕 즉위.
332.1	후조 석륵, 고구려와 우문부 사신에게 항응을 베풀.
333	5월: 모용외 사망. 모용황 즉위. 모용한, 단부선비로 망명. 모용인 반란. 7월: 석륵 사망. [333~336 고구려 부여 점령].
334	2월: 전연, 단부 공격으로 절제 절명의 위기. 후조 석호 즉위. 동진과 모용 선비 해로 교섭.
334.8	고구려, 평양성 증축.
335.1	고구려, 북쪽에 신성 축조.
335	(333년 반란한) 모용인 자결. 모용황, 형제 내분 평정.
336	1월: 괘충, 동수 망명. 3월: 고구려, 동진에 사신 파견하여 토산물 보냄.
337.10	모용황, 연왕으로 즉위. 극성에 도움.
337.11	모용황, 후조와 동맹 후 단부 협공.
338	3월: 모용황, 약탈 후 전쟁 이탈. 후조 석호 전연에 원한 품음. 5월: 봉추, 송황, 유흥이 고구려로 도망. 12월: 단부 멸망. 후조, 30척 배로 고구려에 곡식 등 운반하여 전연과의 전쟁 준비
339.9	전연, 동진에 사신을 보내 증원을 평정하자고 제의함. 모용황, 고구려 공격하여 신성에 이르니, 고국원왕이 화맹 청함.

340	고국원왕, 세자를 전연으로 보냄. 2월: 모용환, 전연으로 복귀.
340.10	후조, 전연 정벌 열병식. 읍루, 고구려를 통해 후조에 楛矢와 石矟 등의 무기 바침.
341.2	모용환, 동진으로부터 연왕에 책봉.
341.10	후조, 수군이 해로를 통해 전연의 안평(하북성 안평)을 습격함. 모용환, 모용각에게 평곽을 진수케 하니 고구려군이 두려워 함. 전연, 극성에서 서쪽인 용성으로 천도.
342	2월: 환도성 보수, 국내성 축조. 8월: 환도성으로 이거.
342.11	전연, 고구려 공격. 고구려 대패, 환도성 함락.
343.2	2월: 고국원왕, 전연에 아우를 보내 칭신·조공하여 미천왕 시신 돌려받음. 7월: 고국원왕, 평양동황성으로 이거후. 동진에 사신 파견.
344.1	전연, 우문부 공격. 우문부 멸망[모용환, 화살 부상. 사약 먹고 사망].
345	우문부왕 일두귀, 고구려로 망명. 10월: 모용환, 남소성 공격하여 취함.
346	모용환, 부여 공격. 부여 현왕과 백성 5만 압송. 부여, 사실상 멸망.
348	모용환, 수렵 도중 낙마하여 머리 다쳐 사망.
349.4	후조, 석호 사망.

이 시대적 배경의 흐름은 기존에 이미 상세히 분석되었다.<sup>9)</sup> 따라서 여기서는 논지 전개상 깊고 넘어갈 부분만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당시 중국은 306년에 끝이 난 ‘팔왕의 난’ 이후 정국이 수습되기도 전인 307년에 ‘영가의 난’이 시작되어 수많은 작은 국가들이 생망하는 5호16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탄 고구려가 미천왕대인 314년에 이르러 안정되어가는 내부적인 힘을 이용하여 서북한지역의 대방군을 흡수하면서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로 발전해 나아갔다.

헌데, 283~285년경 북방 유목민족인 선비족의 일파였던 모용부는 모

9) 여호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2000; 여호규, 「4~5세기 초 고구려와慕容'燕'의 영역 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67, 2012(a), 84~94쪽.

용섭귀가 죽고 그의 아들 모용외가 통솔하기 시작한 후 급속도로 성장하여 고구려와 대전하기 시작한다. 고구려는 293년에 모용외가 침입하자 고노자로 하여금 방어에 성공하게 한 이후로 계속해서 모용부와 충돌한다. 요서지역에서 발현한 이 모용부가 5호16국의 하나인 전연(337~370)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요동지역으로의 팽창을 시도하니, 두 세력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당시 존재했던 다수의 단명 국가들은 각자 쟁탈, 교섭, 동맹, 공략하면서 서로 무너뜨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등 각 국가 간의 엄청난 계략들이 난무하였다. 그러한 점은 요동을 차지하기 위한 고구려에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다. 가령, 고구려는 319년에 단부·우문부와 협동으로 모용외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으나 모용외의 이간질로 협공에 실패하였고, 이를 주도한 평주자사 최비가 고구려로 망명한다. 이후 한 10년간은 모용외가 요동을 점령한 후 계속 열세에 있던 고구려가 후조에 활을 보내어 동맹을 맺는 등 동진에 책봉까지 받은 모용외에 대항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치열한 시대를 살아왔던 미천왕이 331년에 사망하는데, 미천왕의 양숙이었을 모용외도 미천왕이 죽은 지 약 2년 만에 죽는다. 공교롭게도 두 국가가 비슷한 시기에 세대교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는 세자였던 고국원왕이 왕위를 그대로 이어갔던 것에 반해, 모용부는 333년에 왕위계승문제로 국운이 위태로울 정도였던 ‘형제의 난’이 일어난다. 형제 중 모용한은 단부로 도망치고, 모용인과 모용소는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모용외의 3남 모용황이 모용한의 도움을 받은 단부의 공격을 받아 거의 괴멸 직전에 이르기도 하지만, 결국 335년에 이를 평정한다. 이러한 대략의 흐름 속에서 337년에 모용황이 동진과의 종속적 관계를 끊고 연왕을 자칭하며 극성(현 요녕성 의현 서쪽)에 도읍하면서 전연을 건국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러 기록에 나타나는 고국원왕의 모습은 이 전연에 대항하기 위해 동



진 및 후조에 동조하는 등 다양한 외교 노선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용부의 내부적 혼란의 틈을 놓치지 않은 고구려가 부여의 땅을 잠시나마 차지할 수 있었고,<sup>10)</sup> 동진에 사신을 보냈으며,<sup>11)</sup> 후조가 전연을 공격하는 데 군량 보급에 보조하는<sup>12)</sup> 등 전세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갔다. 하지만 차후 국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추진한 모용황의 정복전쟁으로<sup>13)</sup> 주변의 단부(338)와 고구려(342)는 물론 우문부(344) 및 부여(346)가 차례로 전연에 굴복하게 된다.

알다시피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고국원왕의 환도성 이거는 이러한 흐름의 맥락 속에서 실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고국원왕이 외부적인 요인인 전연의 침공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상시 군사방어거점인 환도성으로 이거했다고 설명되고 있다.<sup>14)</sup> 나아가 동시에 국내성을 쌓고 도성민을 전연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하였다고 보았다.<sup>15)</sup> 또 그가 중앙집권화의 연장선상에서 요동 공략을 재개하려고 이거했다고도 하였다.<sup>16)</sup> 충분히 공감할 만한 견해들이다.

그럼 고국원왕의 환도성 이거와 연관된 『삼국사기』의 자료를 살펴보자.

- 
- 10) 여호규, 「고구려와 모용연의 조공·책봉관계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6, 32쪽.  
 1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6년 춘3월조.  
 12) 『資治通鑑』 卷96, 晉紀18 顯宗成皇帝中之下, 咸康 4年(338) 5月.  
 13) 여호규, 「4~5세기 초 고구려와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90쪽.  
 14) 여호규, 「고구려 국내성기의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 26쪽.  
 15) 권순홍, 『고구려 도성 연구』, 126~128쪽. 권순홍, 「고구려 '평양'의 변천과 전기 평양성의 위치에 관한 쟁점 검토」, 15쪽에서 전연과의 전운을 감지한 고구려의 방비책으로, 여호규, 「고구려 국내성기의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 26쪽에서 군사 방어 차원에서 국내성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16) 김영주, 「고구려 고국원왕대의 대전연관계」, 『북악사론』 4, 1997, 37쪽.

- B-① 산상왕 2년 春二月 築丸都城
- B-② 산상왕 13년 冬十月 王移都於丸都
- B-③ 동천왕 20년 秋八月 魏遣幽州刺史毋丘儉 將萬人 出玄菟來侵 (중략)  
冬十月 儉攻陷丸都城 (중략) 王復 屠之 (중략) 又到丸都山 銘不耐城  
而歸 [括地志云 不耐城即國內城也 城累石爲之 此即丸都山與國內城  
相接]
- B-④ 동천왕 21년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  
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險
- B-⑤ 고국원왕 4년 秋八月 增築平壤城
- B-⑥ 고국원왕 5년 春正月 築國北新城
- B-⑦ 고국원왕 12년 春二月 修葺丸都城 又築國內城 秋八月 移居丸都城
- B-⑧ 고국원왕 12년 冬十月 燕王皝遷都龍城 立威將軍翰請先取高句麗  
(중략) 翰曰 “虜以常情料之 必謂大軍從北道 當重北而輕南 王宜帥銳  
兵 從南道擊之 出其不意 丸都不足取也 (중략) 皝從之 十一月 皝自將  
勁兵四萬 出南道 (중략) 諸軍乘勝 遂入丸都 王單騎走入斷熊谷 將軍  
慕輿涅 追獲王母周氏及王妃而歸 ... 皝從之 發美川王墓 載其尸 收其  
府庫累世之寶 虜男女五萬餘口 燒其宮室 毀丸都城而還
- B-⑨ 고국원왕 13년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고국원왕의 환도성 이거는 B-⑦과 같이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환도성은 B-①에 기록된 산상왕이 처음 쌓은 환도성과 같은 것으로, 고구려 천도와 관련된 연구 중 B-④에서 보이는 동천왕의 평양으로의 이거와 연계하여 그다음으로 나타나는 왕의 거취 문제로 주목된 바 있다.<sup>17)</sup> 특

17) 張倣晶,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東川王 21年條 記事 檢討』, 『高句麗研究』 13, 2002. 왕실의 종묘가 옮겨졌던 것으로 보아 '이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권순홍, 「고구려 '평양'의 변천과 전기 평양성의 위치에 관한 쟁점 검토」, 13쪽), 이것은 타

히, 동천왕이 이거했던 평양성이 어디에 위치하였는가가 문제였는데, 이것은 B-⑨에 확인되는 고국원왕이 전쟁 패배후 이거했던 평양동황성과 함께 그 위치 비정에 많은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일찍이 이 동천왕대의 평양성 및 고국원왕대의 평양동황성 모두 집안지역<sup>18)</sup> 또는 강제지역<sup>19)</sup>에서 찾아 왔으나, 근래 들어 전자를 집안지역에서 그리고 후자를 평양지역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다.<sup>20)</sup>

각 견해에 대한 분석은 이전에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찍이 “移都”와 비슷한 것으로 구별없이 생각해 왔던 이 “移居”라는 용어에 대해서다. 논란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느 왕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왕성’으로 거처를 옮겼던 사실을 나타낼 경우에 특별히 사용한 용어라고 추정된다.<sup>21)</sup> 그리고 “이거”

---

의적인 행위로 급박하게 추진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이거로 본 견해로 노태돈, 「고구려 초기의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 『한국고대사연구』 68, 2012, 10쪽, 19~20쪽이 있다.

- 18) 鳥居龍藏, 「丸都城及び國內城の位置につきて」, 『史學雜誌』 25-7, 1914, 883~885쪽; 魏存成, 「高句麗初中期都城」, 『北方文物』 2, 1985; 조영광, 「고구려 王都, 王畿의 형성 과정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81, 2016, 91쪽.
- 19) 이병도, 「고구려동황성고」, 『동국사학』 4, 1956; 서영대, 「고구려 평양천도의 동기」, 『한국문화』 2, 서울대학교, 1981, 91쪽.
- 20) 임기환,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경영」, 『역사학보』 147, 1995, 17~18쪽; 임기환,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37, 2007, 17쪽; 김미경,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진출과 그 지배형태」, 『학림』 17, 1996, 29~30쪽; 김지희, 「고구려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와 남진」, 『한국사론』 62, 서울대학교, 2016, 3쪽, 주5.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당시 평양에 위치했던 낙랑군의 실체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들어 낙랑·대방군의 축출이후 고구려가 대동강 유역을 확보한 이후였기에 고국원왕대 평양동황성 이거는 평양지역에 가능했다라는 관점이 우세가 된 것 같다. 필자와 같이 두 곳 모두 평양지역으로 본 견해로 이도학, 「삼국사기」의 고구려 왕성 기사 검증, 『한국고대사연구』 79, 2015가 있다.
- 21) 장효정,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 21年條 記事 檢討」, 18~20쪽.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에는 “이도”의 기사만 보이고, 유독 “이거”와 관련된 것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고국원왕의 것이 세주로 기록되었다. 이는 아마 『삼국사기』 고구려

는 분명 “이도”와는 달리 임시적인 목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하며, 또 왕이 옮긴 서로 다른 왕성의 원근 거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여하튼, 당시 환도성에 거주하고 있던 동천왕은 관구검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피신하여 돌아온 뒤 복구하지 못할 환도성을 버리고 평양성을 쌓아 백성과 종묘사직을 옮기게 된다. 바로 B-④가 이 내용을 전하는 바와 같이, 이 평양성은 현재 평양에 있었을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sup>22)</sup>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국원왕의 환도성 이거가 동천왕대의 평양성 이거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타의적이 아닌 자의적으로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이 환도성 이거의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서 이거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이 우선 해결되어야 고국원왕이 환도성으로 이거했던 목적이 명확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대부분의 기존 견해들은 고국원왕이 집안지역 내 어느 지구에 머물다가 전쟁 대비차 환도성으로 이거하였다고 보았다. 그 어느 지구로 일찍이 집안현성 및 강계지역이 주목받았지만, 최근 양민일대<sup>23)</sup>

---

본기가 지리지와는 다른 고기의 자료를 의거해 편찬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구삼국사』를 저본으로 했을 고구려본기의 이거 기사들을 더 신빙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전덕재,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288쪽, 주55). 기존에 필자는 B-④의 밑줄 친 부분이 『삼국사기』 중종 임신간본에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이것을 분주로 파악하였으나(장효정,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 21年條 記事 檢討, 11쪽), 이 글을 통해 그것에 기록된 것처럼 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로 수정한다. 이렇게 본문으로 본 견해로 이강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분주 재론, 『백산학보』 67, 2003, 104~110쪽이 좋은 참고가 된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 고려 초기에 편찬한 『구삼국사』의 찬자가 새로이 찬술했다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전덕재,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원전과 완성 -광개토왕대 이전 기록을 중심으로-, 『동양학』 64, 2016, 86~88쪽).

22) 현재 평양성의 한 부분인 복성이 동천왕대의 평양성이 아닐까 한다(장효정, 「고구려왕의 평양이거와 왕권강화」, 『실학사상연구』 15·16, 2000, 132~134쪽).

23) 張福有, 「高句麗第一個平壤城在集安良民即國之東北大鎮 新城」, 『東北史地』

혹은 마선구<sup>24)</sup> 등도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고국원왕은 집안지역 내에서 전쟁에 대비하고자 환도성으로 칩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알다시피 환도성은 이미 동천왕때 조위의 관구검에게 크게 함락당한, 즉 방어에 큰 약점이 있는 왕성이었는데, 오직 전쟁 대비를 위해 같은 지역 내의 환도성으로 이거했다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sup>2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원왕이 그것을 실행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 그는 왜 이곳으로 이거했을까?

앞서 필자는 동천왕이 환도성을 함락당하고 이거했던 평양성이 현재의 평양에 위치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나아가 그 이후 고구려왕들이 부득이하게 계속 평양에 머물며 통치하였다고 보았다.<sup>26)</sup>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때 고국원왕은 평양지역에 있던 평양성에서 집안지역의 환도성으로 이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위의 의문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27)</sup>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서서 고국원왕이 이거했던 원인이랄까 그 목적에 대해 연도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구려는 334년에 평양성을 증축하고(B-⑤), 이듬해에 신성을 축조한다(B-⑥). 이는 333년에 일어난 모용외와 석륵의 사망에 따른 중국 본

2004-4, 2004, 14~15쪽; 임기환, 「광개토왕비의 건립 과정 및 비문 구성에 대한 재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252~253쪽; 임기환, 「고구려 국내도성의 형성과 공간구성」, 『한국사학보』 59, 2015, 39쪽, 주41.

24) 여호규, 「고구려 국내 천도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2005, 63쪽; 강현숙, 「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 56, 2015(a), 33쪽.

25) 고국원왕 시기 대외관계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재차 동일 지역 내에서 이동할 도모하여 외부 세력의 위협을 막고 정권의 안정을 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김지희, 「고구려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와 남진」, 10쪽).

26) 장효정, 「고구려왕의 평양이거와 왕권강화」, 153쪽.

27) 하지만 현 통설처럼 당시 평양의 위치가 집안지역일지라도 왜 고국원왕이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굳이 그때 국내성을 쌓았는가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토의 혼란에 대비한 태세였다고 보여진다. 당시 후조와 함께 모용부를 밀접히 압박하던 고국원왕은 당시의 왕성이었던 평양성을 증축하여 만일에 있을 모용부<sup>28)</sup> 및 백제<sup>29)</sup>의 공격에 대비한 것이다. 나아가 현 요녕성 무순에 위치한 고이산성으로 보이는 신성도 축조하는데, B-⑥에 이것을 나라 “북쪽”에 설치했다고 기록한 것을 봐서 당시의 중심지였던 평양성이 현재의 평양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sup>30)</sup>

그런데 바로 전 330년에 전연과의 대결을 위해 고구려와 통교한 후조가 337년 11월에 와서 단부를 협공하기 위해 모용황과 손을 잡는다. 그러나 모용황이 단부 공격 중에 협력을 깨고 배신하자, 후조는 338년에 다시 고구려의 협조하에 3백 척이나 되는 배를 동원하여 고구려로 곡식을 운반하고<sup>31)</sup> 전연의 복수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sup>32)</sup> 이러한 와중에 후조와 결탁했던 전연의 고위 관리들인 봉추·송황·유홍 등이 고구려에 망명하는데, 이전에 모용부에서 형제의 난을 피해 온 곽충과 동수를 포함하여 전연에

28) 고구려가 전연의 내분을 틈타 낙랑·대방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이 평양성을 초축하였다는 견해(여호규,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 경영과 중국계 망명인의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2009, 163~170쪽) 및 이보다 약간 이른 4세기 초부터 고구려가 평양지역에 거점성을 두고 다수의 토착주민과 중국계 유이민 집단들을 지배했다고 본 견해도 있다(안정준, 「고구려의 낙랑·대방 고지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 『한국고대사연구』 69, 2013, 160쪽).

29) 당시 전연과 백제와의 교섭이 상정된다(정지은, 「3~4세기 백제의 對中교섭과 동이교위」, 『역사와 현실』 112, 2019, 159쪽).

30) 장효정, 「고구려왕의 평양이거와 왕권강화」, 147쪽. 이는 동천왕대 평양성의 위치를 현 평양으로 설명하는 많은 논거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인데, 더 자세한 사항은 필자의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31) 『晉書』 卷106 石季龍載記上.

32) 이때 후조의 행위는 고구려에게 전연과의 협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이기동, 「고구려사 발전의 획기로서의 4세기 -모용 '연'과의 항쟁을 통해서-」, 『동국사학』 30, 1996, 6쪽). 이에 자세한 상황은 이정빈, 「4세기 전반 고구려의 해양활동과 황해」, 『역사와 실학』 59, 2016, 7~11쪽이 좋은 참고가 된다.

서 고구려로 망명해온 자들이 꽤 많았다.

헌데, 앞서 설명한 모용황이 337년 10월에 극성에 도읍하여 연왕을 자칭한 이후로 요동의 사태는 서서히 전연의 우세로 기울기 시작한다. 단부를 멸망시킨 후조의 침입으로 한때 수도인 극성이 포위되는 위기를 맞은 모용황은 그 상황을 격파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켰으며, 340년에는 후조 대군의 공격을 크게 격파하였다. 이후 무리한 전쟁을 통해 별 성과없이 국력을 크게 소모시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후조에 반해, 전연의 모용황은 341년 동진으로부터 책봉까지 받으며<sup>33)</sup> 명실상부한 요동지역의 실세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위 [표]를 보면 339·340·341년 고구려가 전연에 저자세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고국원왕이 즉위 후 평양성의 증축 및 신성의 축조로 고구려의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sup>34)</sup> 또 340년에 고국원왕이 자신의 세자를 모용황에게 입조하게 하여 동맹을 구한 것을 보고, 그가 북중국의 대세를 이미 간파하여 따른 조치였다고 높이 평가된 바 있다.<sup>35)</sup> 하지만 여기서 모용황의 337년 연왕 자칭 및 341년 동진으로부터 책봉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 더 주목하고 싶다. 이 상황은 동진과의 교류를 통해 어떻게든 전연을 제어하려고 했던 고국원왕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강구하게 내몰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당시 평양지역에서 통치하던 그는 대동강 하구를 통한 황해직항로를<sup>36)</sup> 이용해 동진과 교류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 이제 전연과 대항하기 위

33) 자세한 사항은 여효규, 「고구려와 모용연의 조공·책봉관계 연구」, 27쪽을 참조하길 바란다.

34) 지배선, 「고구려와 선비의 전쟁」, 『고구려발해연구』 24, 2006, 81쪽.

35) 지배선, 『중세동북아시아연구』, 일조각, 1986, 88~89쪽. 이때의 세자 파견을 고구려가 이미 전연의 군사적 우세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공석구, 「고구려와慕容'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4, 2003, 62쪽).

36) 장효정, 「고구려왕의 평양이거와 왕권강화」, 130쪽. 이미 3세기 중후반에 이 황해

해 동진과의 교류보다는 후조 및 우문부와의 연계가 더 우선시되었을 것이고, 이에 후조와 압록강을 이용한 해로 및 우문부와의 육로 교류에 더욱 더 집중하였을 것이다. 이외에도 평양지역보다 오히려 집안지역이 전연과 대항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아니 전연과의 필승전략을 집안지역을 중심으로 짚을 것이라 표현해야 더 옳을 듯하다. 물론, 앞서 말한 데로 동천왕대에 관구검의 창을 막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나, 그때와는 달랐다. 그 이후 언 백년간 동천왕의 前轍을 밟지 않기 위해 요동지역에 수많은 산성을 쌓아 전연의 침공에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국원왕은 평양지역에서 집안지역에 위치한 환도성으로의 이거를 추진하지 않았나 한다. 이때 고국원왕이 전연에게 납작 엎드렸던 것도 아마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때를 엿보면서 환도성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평양성을 증축하고 신성을 축조한 원인에 환도성으로의 이거, 즉 집안지역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려는 고국원왕의 뜻도 담겨있지 않았을까 한다. 또 이때에는 평양지역에서의 낙랑·대방군 유이민들에 대한 편성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7)</sup> 이에 고국원왕은 오랫동안 국도지역이며 제의 공간이었던<sup>38)</sup> 집안지역의 환도성으로 복귀하여 국력을 결집하고 강력한 고구려의 부흥을 꾀했을 것으로 보인다.<sup>39)</sup> 나아가 전연의 공세에 위태로

---

횡단항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고국원왕이 전연과의 전쟁에 패배한 후 평양지역에 위치한 평양동황성으로 이거한 뒤 바로 동진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을 보면, 동진과의 교류에 대동강 하류를 통한 이 항로의 사용이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37) 낙랑·대방계 세력 및 중국계 망명인들을 평양계 신진세력으로 상정하고 국내계 귀족세력과의 대립을 분석한 견해가 주목된다(임기환, 「6·7세기 고구려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 1992, 17~18쪽).

38) 기경량, 「환도성·국내성의 성격과 집안 지역 왕도 공간의 구성」, 『사학연구』 129, 2018, 247쪽.

39) 고국원왕의 장지명에 집안지역을 뜻하는 ‘故國’이 특별히 들어간 것을 미루어 보



왔던 부여지역을 확고히 하기 위함도<sup>40)</sup> 그 이유로 추가할 수 있겠다.

그런 만큼 모용씨의 결투는 그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나아가 잘하면 요동 및 요서지역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환도성으로 이거를 단행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다. 모용황이 천도를 한 것이다. 고구려를 침공하기 1년 전인 341년 9월에<sup>41)</sup> 전연은 중원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sup>42)</sup> 도읍을 극성(현 요녕성 의현 서쪽)에서 80여 km나 서쪽에 위치한 용성(현 요녕성 조양시)으로 옮긴다. 나아가 이 직전에 '형제의 난'을 피해 단부 및 우문부로 피신하였다가 340년 2월에 전연으로 복귀한 모용한의 책략 또한 고국원왕의 환도성 이거를 부추긴 것 같다. 한때 요동에도 머물렀던 모용한은 고구려의 강성함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지리에 대해서도 꿰뚫었던 인물이었다.<sup>43)</sup> 그러한 자가 복귀

---

면, 그가 국내지역에 특별한 애착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또 이것은 동천왕대에 무너졌던 환도성을 증축하여 과거에 실추되었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국력을 단합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을 것이다.

- 40) 여호규, 「고구려와 모용연의 조공·책봉관계 연구」, 100~127쪽. 한편, 고구려를 침공한 전연의 목적은 원부여지역을 차지하려고 했기에 고국원왕이 복도에 최전력을 배치했다고 보기도 한다(여호규, 「4세기 동북아 국제정세와 고구려 고국원왕의 생애」, 『역사문화연구』 20, 2004(a), 187쪽).
- 41) 이 용성천도에 대해 여러 기록에서는 1년의 시간차를 보인다. 『자치통감』을 따른 『삼국사기』에는 이를 환도성 침공 직전인 342년 10월로 기록했으나, 『위서』 및 『진서』에 의거하여 모용황이 341년 1월 용성에 이미 종묘·궁궐의 축조를 명하고, 같은 해에 용성으로 천도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이춘호, 「五胡時期慕容前燕의 건국과 그 성격」, 『동양사학연구』 113, 2010, 102쪽, 주137; 이정빈, 「모용선비 전연의 부여·고구려 질자」, 『동북아역사논총』 57, 2017(b), 84쪽, 주23). 또 전략상 전연이 342년 10월에 천도한 바로 1달 뒤에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국원왕의 환도성 이거는 고유 전승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보여지는 B-⑦ 그대로 342년 8월에 실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42) 지배선, 「고구려와 선비의 전쟁」, 81쪽. 전연이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하여 수도를 서쪽에 위치한 용성으로 옮겼다고 보기도 한다(박세이, 「4세기 모용선비 전연의 성장과 고구려의 대응」, 『한국고대사연구』 73, 2014, 70쪽).
- 43) 공석규,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정책과 모용씨」, 『군사』 54, 2005, 54~55쪽. 모용

하여 모용황에게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구려를 쳐야한다고 제안한다.<sup>44)</sup>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모용한의 복귀와 전연의 용성천도, 그리고 환도성 이거는 모두 다 연계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연의 정보를 빠르게 입수한<sup>45)</sup> 고국원왕은 환도성 이거를 실행하여 비록 기록엔 없지만 우문부와 함께 전연을 협공하려 하지 않았을까도 추측해본다.<sup>46)</sup>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원왕은 B-⑦과 같이 342년 2월에 동천왕대 관구검에 의해 파괴되었던 환도성을 보수한 뒤 그해 8월에 그곳으로 이거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이 환도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행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와 달리 국내성 축조에 대해서는 좀 의문가는 것이 있다. 굳이 전쟁 대비용이라면 환도성 수축 후 이거로 충분할 텐데, 평지 석성인 국내성을 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성이 위치한 고지라는 입지가 방어하는 속성을 가장 현저하게 드러내는 것이므로,<sup>47)</sup> 당시 환도산성은 집안지역의 주민들을 방어하기에는 충

---

한이 한때 요동에 머물렀고 단부 및 우문부에 망명해 있을 때 고구려 영토 지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것이다. 모용한의 지혜와 책략이 없었더라면 전연이 고구려를 이길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의 활약 덕분에 전연은 이후 우문부의 공략도 성공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지배선, 「모용한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1993을 참조하길 바란다.

44) 『資治通鑑』 卷97 咸康8年(342) 10月.

45) 고국원왕이 세자를 전연에 보낸 이유는 나름대로 전연에 대한 정보수집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지배선, 「고구려와 선비의 전쟁」, 81쪽). 또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에 첩보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고국원왕의 책략을 백제가 첩자를 통해 파악하는 내용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구수왕 즉위년조에 자세히 서술되어 흥미롭다.

46) 전연이 고구려 타도 후 바로 우문부 공격했는데, 이는 우문부의 수장인 우문일두귀가 전연에 패하자 다투어 아닌 고구려로 망명한 것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7) 권오영, 「방어취락의 발전과 토성의 출현」, 『강좌 한국고대사』 7, 2002, 65쪽.

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8)</sup> 그리고 산성이 아닌 평지라고 하지만 석성을 쌓는 것은 대규모의 인력 동원이 필요한 것인데, 전쟁에 투입해도 모자랄 인력을 결전에 임박한 상황에서 국내성을 축조하는 데 썼던 이유가 궁금하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동원이 전쟁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결국 고국원왕의 환도성 이거도 오직 전쟁 대비로만 규정하면 좀 곤란하겠다. 그럼 이때 기존의 이해와는 달리 전쟁대비로만 축조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국내성은 왜 축조했을까? 군사전략상 전력의 소비가 너무 심한 행위라고 여겨지는 국내성 축조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 Ⅲ. 국내성 축조 - 미완 제국의 꿈

국내성이 위치한 집안지역은 건국 초기부터 고구려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유리왕대 천도 관련 기사에 이 지역의 지리적 이점은 “산수가 깊고 험하면서도 오곡을 키우기에 알맞고, 또 많은 생물이 살기에 마땅하여 백성의 이익이 끝이 없고 전쟁의 걱정도 면할 곳”<sup>49)</sup>이라 하였다. 가히 초기 발전단계에서 고구려의 요충지로서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산성자산성(환도성)과 집안현성(국내성)이 왕성으로 주목받았다. 초기의 연구들이 산성인 환도성과 평지성인 국내성을 두고 산성

48) 당시 평지성인 국내성이 출현한 이유는 왕성으로서의 환도성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으로 본 견해도 있다(강진원, 「고구려 국내도읍기 왕성의 추이와 집권력 강화」, 『한국문화』 82, 2018, 215쪽).

49)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명왕 21년 춘3월조.

과 평지성의 이중 구조의 독특한 고구려의 도성제를 상정한 것에<sup>50)</sup> 대부분 학자도 동의하였다.<sup>51)</sup> 최근에 이것은 재고를 요구받고 있긴 하지만,<sup>52)</sup> 이 고구려의 도성제는 고국원왕대에 와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한다.<sup>53)</sup>

현재 환도성이 축조된 시기를 산상왕대로 보는 것에 큰 이견이 없는 반면, 국내성의 초축 시점에 대해서는 근래에 들어 많은 재론이 발표되었다. 최근 발표된 중국 발굴보고서의 성과로 인해 기존의 연구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중국의 1984년 발굴보고서<sup>54)</sup>에 국내성의 석축성벽 아래에 한대에 쓰였던 토성이 존재했을 것으로 봐서 국내성이 고구려 초기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허나, 2004년 보고서<sup>55)</sup>에서 고구려시대에 국내성을 쌓을 동시에 조성한 토축이 확인되었고, 또 2012년 보고서<sup>56)</sup>에서는 동벽의 축조시기가 4세기 초를 상회하지 않는다고 발표된 것이다. 즉, 고고학 자료로 보면 지금의 국내성 성벽의 초축 시기가 4세기 초 이전일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국내성지 내부에서도 3세기 중반을 상회하는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sup>57)</sup> 국내성의 초축시기

50) 초기 연구성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권순홍, 「고구려 '도성제'론의 궤적과 함의」, 『역사와 현실』 102, 2016과 양시은,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구려 발해연구』 50, 2014(a)를 참고하기 바란다.

51) 임기환,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96, 185쪽. 자세한 사항은 이정빈, 「고구려의 국내성·환도성과 천도」가 좋은 참고된다.

52) 기경량, 『고구려 왕도 연구』, 40~63쪽; 권순홍, 『고구려 도성 연구』, 6~12쪽.

53) 양시은, 「고구려 성의 방어체계 변천양상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84, 2014(b), 75~76쪽.

54)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高句麗國內城址的調查與試掘」, 『文物』 1984-1, 1984, 49~51쪽.

5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國內城』, 文物出版社, 2004, 20~22쪽.

5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集安國內城東南城垣考古清理收穫」, 『邊疆考古研究』 11, 2012, 39~46쪽.

57) 심광주,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성곽연구」,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

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혼란이 오게 된 것이다.

사실 그 이전 연구의 핵심은 이 국내성을 동천왕대의 평양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발굴보고서로 인해 국내성의 초축 시기를 B-⑦과 같이 4세기 중반으로 보는 견해가 제출되기에 이른 것이다.<sup>58)</sup> 꽤 수긍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집안지역에서 가장 좋은 위치인 국내성지에 일찍부터 목책을 사용한 평상시 거점 정도는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sup>59)</sup> 여하튼, 그럼 고국원왕이 이때 와서 국내성을 돌로 초축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국내성은 거의 정사각형 형태의 평지 석성이다.<sup>60)</sup> 총 둘레는 2686m이고, 동문 2개, 서문 1개, 북문 4개, 남문 2개 등 총 9개 성문이 확인되었다.

---

단, 2005, 181쪽; 여호규, 「고구려 국내성 지역의 건물유적과 도성의 공간구조」, 『한국고대사연구』 66, 2012(b), 46~69쪽. 한편, 산성자산성에서도 현재까지 5세기 이후 유물만 출토되었다고 한다(양시은,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2016, 186쪽). 이렇게 예상과 다른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고구려왕이 환도성을 왕성으로 사용한 기간이 오로지 약 38년 11개월 정도뿐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장효정, 「고구려왕의 평양이거와 왕권강화」, 153쪽). 즉, 산상왕~동천왕대에 38년과 고국원왕대 11개월이 그 전부로 꽤 짧았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으로 환도성과 국내성의 발굴성과를 조금 달리 이해해야 좋지 않을까 한다. 당시 평양이 실질적인 왕도였기에 집안지역의 고고학적 유물이 예상과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

- 58) 양시은, 「환인 및 집안 도읍기 고구려 성과 방어체계 연구」, 『영남학』 24, 2013, 60쪽; 김현숙, 「고구려 초기 왕성의 위치와 국내 천도」, 『선사와 고대』 54, 2017, 125쪽.
- 59) 여호규, 「고구려 국내성 지역의 건물유적과 도성의 공간구조」, 70쪽; 여호규, 「고구려 국내성기의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 16쪽, 주36; 임기환, 「고구려 국내도성의 형성과 공간구성」, 39쪽; 기경량, 「환도성·국내성의 성격과 집안 지역 왕도 공간의 구성」, 264쪽. 최근 국내성 발굴성과 이후, 대부분 이것을 B-④의 평양성으로 비정하고 동천왕대부터 나타나는 방위부 왕명의 출현에 주목하여 이때부터 국내성을 중심으로 방위부 편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여호규, 「고구려 도성의 의례공간과 왕권의 위상」, 『한국고대사연구』 71, 2013, 69~71쪽; 정호섭, 「고구려사의 전개와 고분의 변천」, 『한국사학보』 59, 2015, 132~133쪽).
- 60) 이하 국내성지 내부의 현황에 대해서는 여호규, 「고구려 국내성 지역의 건물유적과 도성의 공간구조」, 46~59쪽이 상세하니 참고바란다.

또 관통하는 간선도로망에 의해 그 성지 안에 12개 구획의 구역을 상정할 수 있다. 그중 여러 가지 고고학적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중앙 구획인 제 6~7구역이 당시의 왕궁<sup>61)</sup> 및 종묘<sup>62)</sup>가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성지의 왕궁배치는 기본적으로 후한대까지의 도성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63)</sup>

국내성 내부는 중앙부에 왕궁을 비롯한 핵심시설이, 그리고 격자의 도로망이 형성되어<sup>64)</sup> 그 주변에 민리가 배치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sup>65)</sup> 이렇게 본다면 국내성은 도성으로 볼 수 있겠으나,<sup>66)</sup> 그러하기엔 그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내성은 왕궁을 비롯한 관청 등 주요시설이 설치된 왕성으로 규명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 가운데 국내성이 장방형의 형태인 점과 중요 건물이 중앙에 배치된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61) 임기환, 「고구려 도성제의 변천」, 『한국의 도성』, 서울학연구소, 2003, 11쪽; 김희선, 「고구려 국내성 연구」, 『백산학보』 87, 2010, 142~143쪽; 박순발, 「고구려의 도성과 묘역」, 『한국고대사탐구』 12, 2012, 61쪽; 여호규, 「고구려 도성의 의례공간과 왕권의 위상」, 71쪽; 기경량, 「환도성·국내성의 성격과 집안 지역 왕도 공간의 구성」, 262쪽.
- 62) 강진원, 「고구려 종묘제의 전개와 변천」, 『고구려발해연구』 53, 2015, 37~40쪽에서 왕실 종묘가 국내성지 안 왕궁 구역 근처에 조성되었으며, 주변에 수혈을 둔 '궁'자형 건물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63) 여호규, 「고구려 국내성 지역의 건물유적과 도성의 공간구조」, 72쪽.
- 64) 강현숙, 「고구려 도성과 신라 왕경의 비교」,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9, 2008, 205쪽.
- 65) 박순발, 「고구려의 도성과 묘역」, 26쪽. 다른 논문에서는 민리가 사방의 문을 연결하는 도로망의 존재로 충분히 상정되나 그에 따라 정연히 배치되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도 하였다(박순발, 「동아시아 고대 도성 민리의 형성과 전개」, 『역사문화연구』 52, 2014, 26쪽).
- 66) 기경량, 「한국 고대사에서 왕도와 도성의 개념」, 『역사와 현실』 104, 2017(b), 175~176쪽에서 도성 성립의 기준은 민리 지역을 보호하는 외곽성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한다.

국내성 외부를 보면, 서쪽으로 통구하, 남쪽으로 압록강이 근접하여 흘러 자연 해자를 이뤘고, 성의 동벽 라인이 북쪽으로 환도성의 입구와 남쪽 압록강 건너 산맥 입구로 연결되는 것이 흥미롭다. 당시 고구려의 도성은 성 바깥인 현재 집안시내의 주변지역 및 압록강의 남북천변도 해당했다고 볼 수 있겠다.<sup>67)</sup> 따라서 최소한 고구려 국내지역의 도성 범위는 동쪽으로 장군총 산자락, 서쪽으로 마선구 지역, 남쪽으로 압록강 남안의 산자락, 그리고 북쪽으로 환도성까지 확장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찍이 『삼국지』 찬자는 고구려가 이미 3세기 중반경 정치적 중심지에 “都”를 이루었다고 보았다.<sup>68)</sup> 그런데 성곽과 거리가 멀었던 유목민족도 중원을 통치하던 과정에서 도시구역 제도를 채용했던 이유는 새롭게 형성된 적대적인 정복 이주민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생산을 채용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sup>69)</sup> 이에 따르면, 5호16국시대 통치자들이 徙民을 강제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사민의 집중지구는 건도의 소재지역 혹은 군진의 소재지역였으며, 피사된 인구는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고 유효한 방식으로 통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고국원왕이 전연과의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성을 축조한 이유 중 하나를 제시할 수 있겠다. 이는 2장에서 설명한 당시 북중국에서 망명해 온 많은 고위층 관료 및 漢族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국원왕이 마련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실로 고구려는 요하·대능하 방면

67) 윤명철, 「국내성의 압록강 방어체제 연구」, 『고구려연구』 15, 2003, 59쪽. 한편, 평양 도성 지역에도 대동강 남쪽으로 확장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국내성지 압록강 남안으로 도성의 공간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임기환, 「고구려 국내도성의 형성과 공간구성」, 29쪽).

68) 여호규, 「삼국형성기 문헌사와 고고학의 접점」, 『한국상고사학보』 100, 2018, 124쪽.

69) 박한제, 「유목국가와 성곽」, 420쪽, 436~437쪽.

에서 권력투쟁에 패배한 중국의 유력자들이 피신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망명지였다.<sup>70)</sup> 물론 부여계의 유이민들도 여기서 빼놓을 수는 없겠다. 이러한 망명자들을 수용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때론 통제하고 또 등용하여 전제적 왕권강화의 정책에 기여하도록<sup>71)</sup> 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이러한 망명 관료들에 의해 주례적 정치이념의 고대 중국인의 세계관과 매우 비슷한 고구려의 우주론적 세계관<sup>72)</sup>이 후술할 것과 같이 더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진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도성 축조와 관련해서도 그러했을 듯한데,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고국원왕이 국내성을 축조한 또 다른 이유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 한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도성의 출현은 필수적이다. 유교의 기본경전인 13경 중 하나인 『周禮』 「考工記」 내의 匠人營國條는 서주시대의 성읍 건설제도에 대한 지침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세 역대왕조 도성 건설의 大典으로 여겨져 준수되었다고 한다.<sup>73)</sup> 이 고공기는 왕성의 형태부터 도로, 궁궐, 종묘 및 시장의 위치와 규모, 나아가 왕성 및 제후 성문의 높이와 도로의 규격을 망라한 도성의 제도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sup>74)</sup> 특히,

70) 이기동, 「고구려사 발전의 획기로서의 4세기」, 14쪽. 유력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이주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공석구, 「4세기 고구려 땅에 살았던 중국계 이주민」, 『고구려발해연구』 56, 2016, 11쪽).

71) 임기환,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경영」, 42쪽. 망명인들을 능력에 맞춰 고구려의 관인으로 인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이성제, 「중국계 유이민의 내투와 고구려의 대응방식」, 『중국고증세사연구』 55, 2020, 98쪽).

72) 이기동, 「백제국의 정치이념에 대한 일고찰 -특히 '주례'주의적 정치이념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69, 1990, 7~8쪽, 14~15쪽.

73) 자세한 사항은 賀業鉅(윤정숙 역),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 -『주례·고공기』의 도성제도』, 이회문화사, 1995를 참고하기 바란다.

74) 통상 「주례」 고공기라 불리며 도시계획의 원리로 주목받은 문구는 “匠人營國，方九里，旁三門 國中九經九緯，經塗九軌 左祖右社，面朝後市，市朝一夫.”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대략 ①정방형의 성곽(형태 규모 문)에 ②격자형 가로망을 갖추고 ③좌묘우사 전조후시에 따라 왕궁을 중심으로 주요시설을 배치한다는 등



왕성 중앙부에 왕궁의 위치 및 격자형 가로구획이라는 기본적인 도성계획의 모델을 제시한 이 고공기는 지배질서인 유학의 이상적인 예적 질서의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였다.<sup>75)</sup> 다시 말하면, 『주례』 고공기에 담겨있는 예제사상에 근거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건축물을 배치하며, 그 건축물을 통해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도시와 건축을 통한 ‘예’의 실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은 ‘예제의 실천’을 통해 지배자가 거주하는 도성으로서의 권위와 예법에 따라 천하의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을 인식시켜주는 유용한 도구였던 것이다.<sup>76)</sup>

따라서 동아시아의 많은 도시는 이 고공기를 기준으로 도성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중 전한의 장안성, 조위의 업성, 북위의 낙양성, 당의 장안성, 발해의 상경용천부, 일본의 등원경 및 평성경 등이 그러하다. 많은 논란이 있으나 전한의 장안성에 이르러 이 고공기의 규정을 처음 도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sup>77)</sup> 결국 그 이후 언 5백년 이상이 지난 고국원왕대의 고구려에 고공기의 내용이 널리 알려졌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모용황을 이어 즉위한 모용준이 전연의 황제로 즉위한 후 천도한 곳이 조위의 업성이었던 점과 당시 고구려와 전연의 문화교류적 관계를 떠올려만 봐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추정이 아닐까 한다. 또 위에 설명한 고구려로의 많은 고위 망명자 중 이에 보조했을 자가 분명 있

---

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덧붙여진 것이 왕궁의 위치이다. 왕궁이 정중앙에 놓였는지의 여부와, 왕궁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 좌우가 대칭인지의 여부 또한 고공기라는 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강서연, 『周禮』注·疏를 통해 논의된 都城建設의 핵심과 평면적 형태해석의 비판적 검토, 『건축역사연구』 25-3, 2016, 7쪽 재인용).

75) 권순홍, 「도성 관련 용어 검토」, 『사림』 62, 2017, 57~58쪽.

76) 김영재, 「중국 고대 도성계획에서 증축선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2, 2014, 254~258쪽.

77) 김영재, 「중국 고대 도성계획에서 증축선의 형성과 그 의미」, 256쪽.

있을 것이다.<sup>78)</sup>

당시 고국원왕은 왕궁이 중앙에 위치하는 정방형 형태의 국내성을 쌓아 이상적인 예적 질서의 공간적 왕성을 구현하려고 했다고 생각된다. 물론 국내성이 고공기의 규제에 모두 적확하게 맞춰 축조된 것은 아닐 것이다. 허나 중국 고대 도성들의 구조도 주례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도성의 形制 역시 胡와 漢이라는 이질적인 문화 융합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것처럼,<sup>79)</sup> 당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만든 국내성의 구조는 중국의 사상과 결부한 고구려만의 독특한 산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sup>80)</sup>

고국원왕은 이러한 깊은 의미를 부여한 국내성을 축조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통치를 위해 영토의 지리적 중심지이자 정권수립자의 근거지였던<sup>81)</sup> 집안지역으로의 복귀를 추진한 것이다.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동천왕대부터 왕이 평양에 머물게 되었던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궁궐 및 종교 사직을 위한 평지성을 축조함으로써 왕권신장을 도모하고 국가적 통합을

78) 4세기에 유학의 경전에 밝은 낙랑·대방 유민들 및 중국계 망명인들이 고구려에 유학을 널리 보급되어 태학이 설립될 수 있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전덕재, 「한국 고대사회 외래인의 존재양태와 사회적 역할」, 『동양학』 68, 2017, 113쪽). 고구려 태학에 대해서는 이정빈, 「고구려 태학 설립의 배경과 성격」, 『한국교육사학』 36-4, 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79) 박한제, 「『周禮』考工記의 ‘營國’ 원칙과 前漢 長安城의 구조」, 『중국고중세사연구』 34, 2014, 59~60쪽.

80) 도성의 유형을 크게 자연도시 또는 계획도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박한제, 「중국고대의 도시」, 『강좌 한국고대사』 7, 2002), 국내성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토성이나 초기 고구려인들의 중심지에 자연히 발달한 도시(자연도시) 위에 돌을 올린 ‘계획도성’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81) 史念海가 제시한 6가지 도성의 입지조건 중 이 2가지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겠다(「我國古代都城建立的地理因素」, 『中國古都研究』 2, 1986). 이에 대해서는 박한제, 「중국역대 수도의 유형과 사회변화」, 『역사와 도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44쪽, 주11을 참조하기 바란다.

수립하려 했다랄까?<sup>82)</sup> 나아가 이것은 고국원왕의 요동 진출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였을 것이고, 고구려의 ‘도성혁명’<sup>83)</sup>을 이루려고 했던 그의 염원이 담겨있지 않았나 한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면, 고구려에서 태왕호<sup>84)</sup> 및 연호<sup>85)</sup>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기로 고국원왕대를 주목한 주장은 공감할 만하다. 주지하듯이 당시 존재한 많은 5호16국 나라들이 새로운 왕위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황제와 동격의 의미로 간주한 ‘천왕호’<sup>86)</sup>를 만들어 채택하였는데, 사실이 천왕호가 황제를 칭하기 전단계의 과도적인 칭호로 나타나는 것이 당시 왕조들의 일반적 현상이었다.<sup>87)</sup> 이러한 배경 속에 고구려에

82) 4~5세기를 전후하여 고구려가 ‘유교국가’로 형성되어 갔으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漢으로의 ‘회귀’를 표방했다고 본 견해가 주목된다(조우연, 「집안 고구려비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0, 2013, 167쪽, 173쪽).

83) 이는 愛宕元이 ‘당·송 변혁’의 특징의 하나로 ‘도시혁명’이라 규정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中國の城郭都市』, 中公新書, 1991, 154쪽). 고국원왕은 일련의 평양성 증축, 신성 신축, 환도성 수축, 국내성 석축 및 평양동황성 축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의 건축을 이끌었고, 이때에 이르러 집안지역에 산성+평지성의 이중구조 도성체제를 완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84) 武田幸男, 『高句麗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258쪽; 임기환, 「고구려 왕호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8, 2002, 29쪽; 篠原啓方, 「고구려의 태왕호와 태왕가인식의 확립」, 『한국사연구』 125, 2004(a), 5쪽; 여호규, 「고구려의 태왕호 제정과 국강형 왕릉입지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5, 2010, 461쪽.

85) 김영주, 「고구려 고국원왕대의 대전연관계」, 36쪽; 이도학, 「고구려의 국난과 고국원왕상」, 『고구려연구』 23, 2006, 19쪽; 강현숙, 「고구려 연호 개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한국고대사연구』 77, 2015(b), 70쪽.

86) 谷川道雄, 「五胡十六國・北周における天王の稱號」, 『隋唐帝國形成史』, 筑摩書房, 1971, 325쪽.

87) 강문호, 『중국중세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1999, 45~53쪽. 한편, 전진의 예를 들어 중국과 이적 모두의 공간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칭호가 천왕일 수도 있으며, 아마 당시 천왕호를 사용한 후조로부터 자극받아 고구려가 태왕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견해도 있다(홍승현, 「위진남북조시기 중화 의식의 변용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동북아역사논총』 40, 2013, 281쪽, 296쪽).

서 고유의 천신앙과 유교사상의 천자개념이 확인되는 것<sup>88)</sup>은 당연했지 않았나 한다. 그런 호족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가를 세운 지 언 4백년이나 된 고구려가 새로운 국가적 위상을 정립하려고 그와 같이 천왕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sup>89)</sup>

그런 의미에서 주목되는 것이 고국원왕을 지칭하는 또 다른 왕호인 國岡王이다. 『삼국사기』<sup>90)</sup>를 비롯하여 당대 기록인 모두루묘지<sup>91)</sup>와 집안 고구려비<sup>92)</sup>에 고국원왕을 국강상(성태)왕으로 불렀던 것이 확인된다. 하긴 이 국강상은 국내성이 위치했던 집안지역을 의미하는 “故國”과 같은 의미인 장지명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기록과는 달리 국강상의 “岡”을 산 등성이라는 뜻을 가진 “岡”자로 판독하여 ‘도성의 언덕’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sup>93)</sup>

88) 篠原啓方, 「고구려적 천의 구조」, 『한국학보』 117, 2004(b), 10~17쪽.

89) 천왕지신총의 예를 들어 이미 고구려에서도 태왕의 별호로 천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환기한 바 있다(윤상열, 「고구려 중기 천하관의 추이」, 『고구려발해연구』 30, 2008, 21~23쪽).

90) 『삼국사기』 정덕본에도 국강상왕의 강이 분명 “岡”자로 기록되어 있다(이강래 교감, 『김부식 원본 삼국사기』, 한길사, 1998, 186쪽). 이는 모두루묘지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91) 노태돈, 「모두루묘지」, 『여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93쪽; 여호규, 「고구려 건국설화가 모두루무덤에 묻힌 까닭은」,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004(b), 44쪽, 56쪽.

92) 여호규, 「韓·中·日 3國 學界의 〈集安高句麗碑〉 研究動向과 課題」, 『東方學志』 177, 2016, 130쪽, 주99, 주162.

93) 여호규, 「고구려의 태왕호 제정과 국강형 왕릉입지의 성립」, 3쪽, 주14; 여호규, 「고구려 국내성기의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 31쪽. 한편, ‘岡’·‘岡’은 모두 ‘崗’의 이체자라고도 하나(羅新, 「고구려 王號제도에 관한 몇 가지 추론」, 『한국고대사연구』 67, 2012, 75쪽), 좀 달리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 어찌보면 존칭의 의미가 있는 “岡”자를 근구수왕대의 백제에서 그 의미를 낮출 의도로 고국원왕을 “國岡王”으로 고쳐 적은 것이 아마 시초가 아닐까 한다. 즉, 백제에서 전해져온 어느 사서에 “國岡王”이라 下稱한 것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구수왕 즉위년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과 같이 ‘복두칠성’을 뜻하는 “𐄂”자로 판독하여 국강상이 모두루묘지에 나오는 “천하사방”<sup>94)</sup>의 위, 즉 넓게 ‘하늘[天]’이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곧, 국강상은 직역하면 ‘하늘 북극성보다 높은’, 의역하면 ‘천하사방 위에 최고’라고 왕을 극존칭하여 불렀던 고구려 고유의 언어를 한자로 음역한 것으로 생각된다.<sup>95)</sup> 천손의 후예인 고구려왕을 천왕으로 칭했던 것은 하등 이상한 것이 아닌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현재까지 이 국강상을 장지명으로만 봐왔는데, 사실 당시 호족왕조에서 사용했던 그 ‘천왕호’를 고구려 스타일로 쓴 고유의 존칭이라고 조심스레 추정해보고자 한다.<sup>96)</sup> 따라서 국강상왕, 국강상태왕 혹은 국강상성태왕은 곧 ‘천왕’, ‘천태왕’ 혹은 ‘천성태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sup>97)</sup>

94) 박성봉, 「『광개토호태왕』 왕호와 세계관」, 『고구려연구』 2, 1996, 630~631쪽에서 이 천하사방은 고구려인의 독자적 천하세계관을 상징하기 충분하며, 고구려의 인격신인 천제, 즉 왕실의 조상신으로서의 천제 관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였다.

95) 고구려 왕호가 고구려어의 단어 및 어구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 본 견해가 있다(최진열, 「고구려 광개토왕대 전후 왕호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7, 2012, 48~49쪽; 羅新, 「고구려 王號제도에 관한 몇 가지 추론」, 48~49쪽).

96) 사실 장지명 왕호는 군주 개인을 구별하기 위한 호칭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최진열, 「고구려 광개토왕대 전후 왕호의 성격」, 44쪽), 광개토왕비에도 광개토왕을 지칭하는 왕명으로 장지명이 맨 앞에 나오는 것에 좀 의심이 간다. 따라서 고국원왕의 장지는 고국원이지 국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장지명 왕호는 고국양왕을 끝으로 광개토왕대에 없어졌다가 양원왕대에 이르러 다시 나타났다고 이해된다. 이는 고구려의 천도와도 관련이 있는 듯한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97) 한편 『삼국사기』에 태조대왕이 본래 국조왕이라 불렸음을 보면, 국강왕 또는 국강상왕은 ‘태천왕’ 또는 ‘태천대왕’이라는 고구려 언어의 한자 음역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고구려도 칭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천왕이라 칭하는 과도적인 조치를 했을 것으로 본다. 이 과도적 조치와 관련해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38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고구려인의 혈연적 군주관이 유교의 천명론적 군주관과 달라 유교적 표현인 ‘聖’이 다중적 의미의 용어로 변용되어, 고구려 왕들의 신성성을 묘사하고 고구려적 천하의 운영원리를 표현했다고 한 견해도 있다(여호규,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릉비 序頭の 단락구성과 서술내용 비

여기서 다시 정방형의 중앙에 왕궁이 차지하는 국내성의 구조를 주목해보자. 그 배치가 어떤 이상적 관념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배치는 『주례』 고공기 장인영국조보다 匠人建國條<sup>98)</sup>에서 도성의 동서남북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왕궁의 위치를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sup>99)</sup> 나아가 이 장인건국조에서 핵심문구인 문장을 맺는 “以正朝夕”이라는 것은 ‘天中’인 북극성을 뜻한다고 한다.<sup>100)</sup> 그 고공기의 규정을 처음 도입한 전한의 장안성의 모습을 성곽의 북벽과 남벽이 각각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을 본뜬 것처럼 보여서 “斗城”으로 기록한 것<sup>101)</sup>을 미루어 볼 때, 한편으로 고구려에서 국내성을 북극성과 관련한 “국강상”으로도 표현했을 수 있지 않았나 억측해본다.

여하튼, 고국원왕은 『주례』 고공기의 장인영국과 장인건국의 규정에 맞춰 천하의 중심에서 천하를 지배하는 이상적인 도성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았나 장황하게 설명해 보았다. 이러한 의미가 부여된 국내성을 축조함으로써 고국원왕은 자신을 국강상왕, 즉 ‘천태왕’으로의 위엄을 널리 알려 고구려의 천하관을 정립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천태왕의 초월적 위상을 표출하기 위해 국내성을 축조하려던 고국원왕의 원대한 계획은 처절하게 무너져버렸다.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매우 처참하였다. 따라서 전연과의 전투에서 예기치 않게 패배한 고

교, 『신라문화』 45, 2015, 52쪽). 물론, 이러한 필자의 견해는 시론적인 것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 심분 인지하며 차후 더 보완해 갈 것임을 여기서 밝혀두겠다.

98) 孫詒讓, 『周禮正義』, 3415~3419쪽, “匠人建國, 水地以縣, 置槩以縣, 眡以景, 爲規, 識日出之景與日入之景, 晝參諸日中之景, 夜考之極星, 以正朝夕.”

99) 최재영, 『『주례』 고공기의 도시계획원리와 수당장안성의 구조』, 『역사문화연구』 35, 2010, 9~10쪽.

100) 강서연, 『『周禮』를 통해 본 都城建設 계획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76쪽, 116쪽.

101) 『三輔黃圖』 卷1 「漢長安故城」, 58쪽, “城南爲南斗形, 北爲北斗形, 至今人呼漢京城爲斗城是也.”

국원왕은 “혈연보다는 지연에 기초한 국가조직”<sup>102)</sup>이 있는 평양지역으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sup>103)</sup>

이로써 국내지역은 고구려가 거대한 제국으로 크게 성장하기에 중심지로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요동에 위치한 국가들의 공격에 2번이나 멸망할 정도 큰 타격을 입었고, 거대해진 고구려의 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규모에 비해 너무 협소하여 동시대 북위의 낙양성과 같이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이 불가능했다. 나아가 중국 남부와 연결통로인 해상교통 및 한반도 남부의 백제·신라와의 교류와 통제의 용이성도 저조한 곳이었다. 때문에 고국원왕은 다시금 평양지역으로 돌아가 멸망 직전까지 내몰린 국가적 위기를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IV. 맺음말 – 동아시아에서 국내성 축조의 의의

고국원왕은 재위 기간동안 2차례나 이거한 왕으로 주목받았다. 이 글

102) 이것은 고든 차일드가 도시를 구분하는 열가지의 고고학적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지역과 평양지역의 구분점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겠다. 이 차일드 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박선미, 「한국고대도시의 기원 연구」, 『백산학보』 101, 2015, 42~43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03) 패배후 고국원왕이 이거한 평양동황성은 청암리토성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장효정, 「고구려왕의 평양이거와 왕권강화」, 143쪽), 이러한 미완성된 원대한 제국으로 가는 꿈을 표상으로나마 새겨두려고 했을까? 고국원왕은 그 성의 이름을 “평양동황성”, 즉 평양 동쪽의 ‘黃城’이라 칭하여 국내성으로 이루지 못한 황제 도성의 꿈에 대한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지 않았나 추정해본다. 최근 대동강 남쪽에 방형인 의암동 토성을 주목하면서도 이 평양동황성에 대한 기록은 잘못된 전승이라는 견해도 있다(기경량, 「고국원왕대 ‘平壤東黃城’의 위치와 移居 기록의 성격」, 『한국학연구』 57, 2020, 343쪽).

은 그가 자발적으로 환도성으로 이거하고 국내성을 축조했던 이유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전연과의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진했던 이 두 사건은 꼭 전쟁 대비책이라는 군사적인 측면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기에 또 다른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왕도란 당시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면의 종합적 시대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04)</sup>

평양에 머물고 있던 고국원왕은 전연이 동진에 책봉받고 서쪽방향인 용성으로 천도하자 동천왕대 이후 계속 추진하려 했던 집안지역으로의 복귀를 마침내 실행하였다. 전연과의 갈등 및 전투준비는 고국원왕이 평양 지역의 내부세력들을 설득하여 집안으로 복귀할 좋은 기회였다. 또 급박하게 완성해야 하는 이유로 이전 왕성이었던 환도성을 수증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제일 좋은 결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전투준비에도 벅찰 상황에서 대거 인력동원을 요구하는 국내성 축조를 환도성 수증과 동시에 추진한 것이 좀 의문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꼭 방어대비로 보일지라도 국내성 축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국원왕이 『주례』 고공기에 입각한 정방형의 국내성을 쌓아 당시 수많은 망명인 및 도성민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공간, 곧 고구려의 천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국제적 도시의 왕도를 마련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연과의 예상치 못한 전투패배로 이 원대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처음 왕성으로 계획된 국내성은 차후 고구려의 제2의 지방 도성으로 그 성격이 변화해 나아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의 실패로 그 ‘천태왕’에 알맞은 왕도의 계획이 초기 단계에서 머물러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이것은 3경<sup>105)</sup>의 하나로서 고구려의 중심지로 계속 발전해 나아갔다고 본다.

104) 박한제, 「중국역대 수도의 유형과 사회변화」, 41~48쪽. 이렇게 미루어 볼 때, 고국원왕은 전연과의 전투에 대비하였으나 진짜 전쟁이 실행되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지 않았나 추정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고고학적 근거가 전무하여 조심스럽지만 고국원왕대 국내성 축조를 계기로 국내성지를 중심으로 한 격자형 가로구획이 집안분지 전체에 구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구획이 새로이 유입된 인구들을 고구려의 신분제에 자연스럽게 편입하는 장치로 작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sup>106)</sup>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 일련 소수림왕대의 태학설립(372), 울령반포(373), 불교수용(375) 및 고국양왕대의 종교사직(391) 개혁들의 시발점으로 고국원왕대를 주목하면 어떨까 한다. 이렇게 국내성은 고구려 도성 경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107)</sup>

더 자세한 고고학 자료들이 나와야 하겠지만 국내성의 축조는 동아시아 도성 발전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만약 본론의 추정이 허락된다면, 사실 북위의 낙양성보다<sup>108)</sup> 먼저 축조된 국내성의 위상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나아가 이 국내성 축조 계획 및 그 구조가 다른 주변 나라들에 어떠한 표준이 되진 않았을까 곰곰이 연

105) 주나라의 양도, 한나라의 양도제를 비롯하여 전연에서도 대극성·용성·업을 일러 3경이라고 하였다(송기호, 「발해 5경제의 연원과 역할」, 『강좌 한국고대사』 7, 2002, 228~230쪽).

106) 권순홍, 「도성 관련 용어 검토」, 57쪽.

107) 권순홍, 「고구려 도성 경관의 형성과 지배 권력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c).

108) 일찍이 고구려의 안학궁지가 북위의 낙양성보다 가로구획을 먼저 조영했을 가능성이 상정된 바 있다(여호규, 「삼국시대 도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문화연구』 26, 2007, 163쪽). 또 고국원왕이 ‘烈帝’로 칭해진 것이 오히려 북위로 전해졌을 수 있다고 본 견해도 있다(윤상열, 「고구려 중기 천하관의 추이」, 23쪽, 주43). 반면, 고구려인들이 격자형 구획을 북위 낙양성의 조영보다 먼저 했을 리 없고, 고구려 후기 장안성시기에 이르러야 가능했을 것으로 본 견해(기경량, 「한국 고대사에서 왕도와 도성의 개념」, 184쪽) 및 동천왕대 평양성을 현 국내성지로 비정하고, 그것이 조위의 낙양성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의 최초 평지성이었다고 본 견해도 있다(권순홍, 「고구려 도성 내 평지 성곽의 출현과 그 기능」, 『역사학보』 244, 2019(d), 19~25쪽).

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평양 중심의 고구려 중후기의 도성계획 중 특히 안학궁 축조와 연관이 있을 것이 분명하며, 신라의 도성<sup>109)</sup> 및 5소경,<sup>110)</sup> 백제<sup>111)</sup>와 발해<sup>112)</sup>의 도성 구조, 나아가 일본의 도성<sup>113)</sup>에 미친 그 영향을 추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고구려의 도성제는 주변 국가들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2021.03.22. 투고 / 2021.04.20. 심사완료 / 2021.08.04. 게재확정)

- 
- 109) 강현숙, 「고구려 도성과 신라 왕경의 비교」, 212쪽; 윤선태, 「新羅王宮과 國家寺刹」, 『신라문화』 57, 2020, 115쪽.
- 110) 고구려의 국내성과 한성이 신라의 소경처럼 ‘지방에 위치한 또 다른 왕경’과 같은 존재로 추정할 수 있다(여호규, 「한국 고대의 지방도시 -신라 5소경을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7, 2002, 125쪽).
- 111)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백제의 도성 중 특히 익산도성에서 종묘 및 도로의 배치에 『주례』 고공기를 따른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되고 있다(최완규, 「백제도성과 익산」, 『마한·백제문화』 34, 2019, 30쪽; 이용욱, 「백제 도성도로와 지방도로의 비교」, 『중앙고고연구』 33, 2020, 16~20쪽).
- 112) 윤재운, 「발해 도성의 의례공간과 왕권의 위상」, 『한국고대사연구』 71, 2013, 163쪽.
- 113) 최근의 발굴성과에 따르면 일본 등원경의 조방제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남북으로 긴 형태가 아니라 정방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의 장안성이나 북위의 낙양성이 아닌, 『주례』 고공기의 이상에 따라 격자형의 공간구획을 시행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참고된다(박진한, 「일본 전근대도시의 연구 현황」, 『역사학보』 207, 2010, 413쪽). 이에 반해 등원경이 『주례』의 중국도성의 이상형에 기초하여 설계된 도성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양정석, 「新羅 王京과 日本 藤原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9, 2008, 77쪽). 한편, 고대 일본에서 궁도의 시작이 천황이라는 군주호 및 율령을 통치체제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출현한 시기와 맞물려 나타났다는 견해도 주목된다(송완범, 「고대 일본의 도시와 이동의 문제」, 『동아시아고대학』 31, 2013, 174쪽, 181쪽).

[Abstract]

**The Dream Castle: Reevaluating the Reason of Goguryo King  
Gogukwon's Hwando Castle Relocation  
and Guknae Castle Construction**

Jang, Hyoji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y the king Gogukwon of Goguryo proceeded the two historical incidents, relocating himself to the rebuilt Hwando Castle and constructing Guknae Castle, simultaneously in the year of 342AD as written on the *Samguksagi*. It seems little bit odd that the king propelled on these series of events even on the verge of the Former Yan(전연)'s invasion of Goguryo, which demanded tons of people's labor. This unrealistic decision could lead the battle with the Former Yan to the direction of defeat, and would be a vulnerable action to take to win any wars.

This research concluded that the reason for the relocation to Hwando castle was that the location of Jian area was more effective to prepare for the war than at the Pyongyang area,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Later Zhao(후조) and the Yuwen tribe(우문부), and protecting the motherland Puyo(부여). However, for the construction of Guknae castle was executed somewhat with a different purpose.

From reviewing the unique squared shape and the center-placed king's palace of Guknae castle, I speculated that the Guknae castle was built based upon the theories on capital planning in *Zhouli*(꺽주

례.) *Kaogongji*(고공기)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which would unify the kingdom's power to focus on the battle with the Former Yan. And this idea must have been supported by the Chinese immigrants who moved to Goguryo in any reason to evacuate from many disasters related to the wars in the Northern China territories.

Through building this 'dream' castle which symbolizing the divine right of the kingdom, King Gogukwon planned to induce his diverse people to put himself in the position of the one and only Tian-Wang(천왕), and this was the action exclaiming the validation of the ruling ideology of Goguryo to its own people and around the world.

□ Keyword

Goguryo, Gogukwon, Hwando Castle, Guknae Castle, Pyongyang Castle, Gukgangsang, Tian-wang, Former Yan, Zhouli Kaogongji

[참고문헌]

- 강문호, 『중국중세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1999.
- 강서연, 「『周禮』를 통해 본 都城建設 계획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강진원, 「고구려 국내도읍기 왕성의 추이와 집권력 강화」, 『한국문화』 82, 2018.
- 강현숙, 「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 56, 2015(a).
- 공석구, 「고구려와 慕容‘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공석구, 「4세기 고구려 땅에 살았던 중국계 이주민」, 『고구려발해연구』 56, 2016.
- 권순홍, 『고구려 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a).
- 권순홍, 「고구려 ‘평양’의 변천과 전기 평양성의 위치에 관한 쟁점 검토」, 『역사문화연구』 70, 2019(b).
- 권순홍, 「고구려 도성 경관의 형성과 지배 권력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c).
- 권순홍, 「고구려 도성 내 평지 성곽의 출현과 그 기능」, 『역사학보』 244, 2019(d).
- 기경량, 『고구려 왕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a).
- 기경량, 「환도성·국내성의 성격과 집안 지역 왕도 공간의 구성」, 『사학연구』 129, 2018.
- 김영재, 「중국 고대 도성계획에서 중축선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2, 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 김영주, 「고구려 고국원왕대의 대전연관계」, 『북악사론』 4, 1997.

- 김종범, 「중국 고대 도시계획의 기본원리에 대한 소고」, 『국토계획』 34-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9.
- 김지희, 「고구려 고국원왕의 평양 이거와 남진」, 『한국사론』 62, 서울대학교, 2016.
- 김현숙, 「고구려 초기 王城의 위치와 국내 천도」, 『선사와 고대』 54, 2017.
- 노태돈, 「고구려 초기의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 『한국고대사연구』 68, 2012.
- 박세이, 「4세기 모용선비 전연의 성장과 고구려의 대응」, 『한국고대사연구』 73, 2014.
- 박순발, 「고구려의 도성과 묘역」, 『한국고대사탐구』 12, 2012.
- 박진한, 「일본 전근대도시의 연구 현황 -'천년 고도', 교토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07, 2010.
- 박한제, 「중국역대 수도의 유형과 사회변화 -'당·송 변혁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도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박한제, 「중국고대의 도시 -한~당의 도성구조를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7,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 박한제, 「유목국가와 성곽 -坊牆制의 출현과 그 배경」, 『역사학보』 200, 2008.
- 박한제, 「『周禮』考工記의 '營國' 원칙과 前漢 長安城의 구조」, 『중국고중세사연구』 34, 2014.
- 송완범, 「고대일본의 도시와 이동의 문제 -천궁과 천경」, 『동아시아고대학』 31, 2013.
- 篠原啓方, 「고구려적 천의 구조」, 『한국학보』 117, 2004(b).
- 안정준, 「고구려의 낙랑·대방 고지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 『한국고대사연구』 69, 2013.
- 양시은, 「환인 및 집안 도읍기 고구려 성과 방어체계 연구」, 『영남학』 24, 2013.

- 양시은,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50, 2014(a).
- 여호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2000.
- 여호규, 「4세기 동북아 국제정세와 고구려 고국원왕의 생애」, 『역사문화연구』 20, 2004(a).
- 여호규, 「고구려 국내 천도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2005.
- 여호규, 「고구려와 모용연의 조공·책봉관계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 왕조의 조공·책봉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6.
- 여호규,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 경영과 중국계 망명인의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2009.
- 여호규, 「4~5세기 초 고구려와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67, 2012(a).
- 여호규, 「고구려 국내성 지역의 건물유적과 도성의 공간구조」, 『한국고대사연구』 66, 2012(b).
- 여호규, 「고구려 도성의 의례공간과 왕권의 위상」, 『한국고대사연구』 71, 2013.
- 여호규, 「고구려 국내성기의 도성경관과 토지이용」, 『고구려발해연구』 65, 2019.
- 윤상열, 「고구려 중기 천하관의 추이」, 『고구려발해연구』 30, 2008.
- 이기동, 「백제국의 정치이념에 대한 일고찰 -특히 '주례'주의적 정치이념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69, 1990.
- 이기동, 「고구려사 발전의 획기로서의 4세기 -모용 '연'과의 항쟁을 통해서-」, 『동국사학』 30, 1996.
- 이도학, 「고구려의 국난과 고국원왕상」, 『고구려연구』 23, 2006.
- 이도학, 「『삼국사기』의 고구려 왕성 기사 검증」, 『한국고대사연구』 79, 2015.
- 이성제, 「중국계 유이민의 내투와 고구려의 대응방식」, 『중국고중세사연구』

55, 2020.

- 이영·한경호, 「한·중·일 도성계획에서 『주례·고공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3, 2011.
- 이우종, 「중국과 우리나라 도성의 계획원리 및 공간구조의 비교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5, 서울시립대학교, 1995.
- 이정빈, 「4세기 전반 고구려의 해양활동과 황해 -고구려와 후조·모용선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59, 2016.
- 이정빈, 「고구려의 국내성·환도성과 천도」, 『한국고대사연구』 87, 2017(a).
- 이정빈, 「모용선비 전연의 부여·고구려 질자」, 『동북아역사논총』 57, 2017(b).
- 이춘호, 「五胡時期 慕容前燕의 건국과 그 성격-勤王의 출현 및 그 운용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13, 2010.
- 임기환, 「고구려 국내도성의 형성과 공간구성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9, 2015.
- 임기환, 「고구려 전기 도성 관련 기사의 재검토 -기사의 원전 계통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5, 2018.
- 장효정, 「고구려왕의 평양이거와 왕권강화」, 『실학사상연구』 15·16, 2000.
- 張倣晶,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 21年條 記事 檢討」, 『高句麗研究』 13, 2002.
- 장효정, 「대동강 하류일대 고구려 적석총의 분포현황과 그 성격」, 『국사관논총』 101, 2003.
- 장효정, 『하룻밤에 읽는 삼국사기』, 중앙랜덤하우스, 2004.
- 전덕재,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 정지은, 「3~4세기 백제의 對中교섭과 동이교위」, 『역사와 현실』 112, 2019.
- 정호섭, 「고구려사의 전개와 고분의 변천」, 『한국사학보』 59, 2015.
- 조영광, 「고구려 王都, 王畿의 형성 과정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81, 2016.
- 조우연, 「집안 고구려비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한국고대사연구』



- 70, 2013.
- 조윤재, 「고고자료를 통해 본 삼연과 고구려의 문화적 교류」, 『선사와 고대』 43, 2015.
- 지배선, 『중세동북아시아연구 -모용왕국사』, 일조각, 1986.
- 지배선, 「고구려와 선비의 전쟁 -모용외와 모용황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24, 2006.
- 최재영, 「『주례』 고공기의 도시계획원리와 수당장안성의 구조」, 『역사문화연구』 35, 2010.
- 최진렬, 「고구려 광개토태왕대 전후 왕호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7, 2012.
- 한경호, 『한·중·일 도성계획에서 『주례·고공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홍승현, 「위진남북조시기 중화의식의 변용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동북아역사논총』 40, 2013.
- 愛宕元, 『中國の城郭都市』, 中公新書, 1991.
- 渡邊信一郎(문정희·임대희 역), 『천공의 옥좌- 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신서원, 2002.
- 賀業鉅(윤정숙 역),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 -『주례·고공기』의 도성제도』, 이회문화사, 1995.